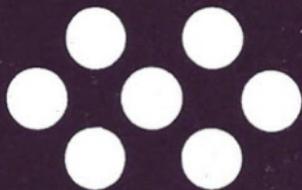


# 소그룹을 인도하려면

- MICHAEL WIEBE 지음



한국기독교학생회 (IVF)

□ 본 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서명인가 없이는 복사(프린트·제록스·마스터·사진 및 기타)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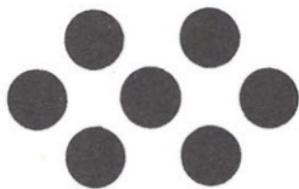
□ 한국기독교학생회(KOREA INTER-VARSITY FELLOWSHIP / I. V. F.)는 대학 캠퍼스 및 지정사회의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초교파적, 복음적인 신앙운동체입니다.

□ 본 출판부는 전도(EVANGELISM)·제자도(DISCIPLESHIP)·선교(MISSION)에 관한 교재, 서적 및 자료를 출판 보급 하고 있습니다.

Originally Published in 1976 as SMALL GROUPS 1976. © Michael. Wiebe by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of the U. S. A. Translated by permission of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Il, 60515, U. S. A.

# 소그룹을 인도하려면

- MICHAEL WIEBE 지음



한국기독교학생회 (IVF)

第一卷

目錄

一、緒言

二、第一章

三、第二章

四、第三章

五、第四章

六、第五章

七、第六章

七

신약성경은 신자사이에 있어야 할 개인 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서로 짐을 지라 (갈 6 : 2), 서로 서로 격려하라 (히 10 : 24),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 보라 (빌 2 : 4), 그리고 또 서로를 권계(勸戒)하라 (살전 5 : 14)고까지 한다. 이 모든 귀절은 분명히 피상적으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이런 정도까지 알려고 하면 우리 편에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활을 타인에게 열어 보임으로 인해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는 위험성까지도 개재(介在)된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인즉,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는, 필요한 수고를 하고 기회를 잘 이용해서 깊은 교분과 관심이 동반된 교제를 가지라는 것이다. 신앙적 생활 양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이만한 노력과 위험성을 무릅쓸만큼 중요한 -이 개인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 신약의 방식

사도 바울은 함께 모이는 목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 14:26). 이 귀절은 각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신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은사들의 기능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바울은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매우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신자는 나머지 다른 신자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존재이고, 어느 개인도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중요하지 않다하여 업신여길 수 없다. (고전 12 : 14-21)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사이에 추구해야 할 개인적인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진 것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의 하나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개개인의 영적 은사가 외적으로

표현될 때 사랑이라는 특징을 띄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은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신앙 수립(건덕 : edifying)이다(고전 14:26).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역시 인간관계(2, 3절) 및 영적 은사(7, 11절)라는 전후 문맥속에서, 건덕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건덕(Edifying) 혹은 “확고히 세움(Building up)”은 영적인 성장을 말한다. 건덕의 목표는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13절). 그 결과는 영적 안정, 생활 양식화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가는 것이다(14, 15절).

이 성장이야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하라”고 편지할 때, 그의 의중에 있었던 바이다. 이것이 우리들 개인 관계의 목적이다. 즉 우리들 자신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과 타인의 성장을 격려하는 것이다.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나누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신약적 기독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활은 큰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를, 또 이런 성장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한 체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큰 그룹만으로는 이런 형태의 친밀한 교류를 이룰 수 없다. 큰 그룹 안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생활에 대해 피상적인 이야기 밖에는 나누기가 힘들다. 우리 생활의 사사로운 어려움이나 기쁨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적으로 알

리기 꺼리는 것들이다.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준의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더 작은 그룹이 필요하다. 솔직하고도 숨김없이 자신을 나누는 일과 소그룹으로 시작한 성장 과정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종종 좀 더 큰 모임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소그룹은 적은 수효의 사람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소그룹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피차간에 나눌만큼 상호 신뢰감이 생기게 한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진실로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격려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로를 권계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존재 이유이다. 즉 성경공부, 기도, 나눔(sharing)을 통해 자신과 서로 서로를 좀 더 앞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닮아 나가고, 그분을 좀 더 온전히 알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 신자들이 모일 때 반드시 큰 무리가 모여야 한다고는 하지 않으셨다(18:20). 예수님 자신의 지상 사역에는 그를 따르던 대중들 가운데 소그룹의 사람들만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 소그룹 속에서 열한 제자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 나갔으며, 이로인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에 퍼뜨렸던 것이다. 열한 제자 가운데 두명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더 작고 친밀한 그룹 안에 속해 있었는데(마 17:1, 막 5:37, 14:33), 이 둘이 후에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심지어는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도, 그 두 제자의 고아한 품격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에 소속해 있었던 덕분임을 인정했던 것이다(행 4:13).

초대교회 자체의 방식도 이러한 본보기를 따른 것이다. 첫 날에 3천명이라는 급격한 성장 때문에 신자들은 커다란 연합예배와 더불어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다(행 2:41-46). 교회가 계속 성장함에 따

라서 이런 방식을 계속해 나갔다 (행4:4, 5:42). 오늘 날 소그룹 모임을 가짐으로 대예배를 보충하는 이러한 본보기를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영적성장을 보 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나 자매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행4:13)”될 것이다.

### 첫 출 발

만일 당신이 타인과 더불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소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그런 그룹을 하나 만들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 몇가지 제안 사항이 있다.

우선, 성공적인 그룹은 어떤 위원회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나 나처럼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그룹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성령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그룹에 사람을 보내주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

소그룹에 알맞은 크기는 2명에서 8명이다. 12정도도 가능하긴 하지만 8명 이상이 되면, 회원 전원의 충분한 참여가 불가능해짐으로 소그룹이 가진 몇 가지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다고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관심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둘이서 모임을 시작하여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 하되 준비하신 때가 되면 그룹의 크기를 늘려 주실 것임을 믿으라.

정기적으로 모이되 융통성있게 하라. 모임은 매주에

한번 혹은 격주에 한번이 좋다. 그 이하로 모이면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어떤 사람이 매일 당하는 어려움을 알려면, 그를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의 횟수로 만나야 한다.

당신이 처음으로 소그룹을 시작해서, 몇몇 사람을 권유했을 때 시험적인 기간을 명확히 해두라. 예를 들면 4주동안 연달아서 만나도록 합의를 보라. 처음 4주가 지난후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해 보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계속 모일 것인지를 결정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으레 그렇듯, 소그룹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도움이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두려울 수도 있다. 성공하는 데 어떤 마술적인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시도해 볼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몇 가지 있다.

첫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왜 모이며 이 그룹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룹의 목표를 의논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라. 그러나 매주마다 이렇게 하지는 말라. 서로를 확고히 서게 하고 격려하는 일을 즉시 시작하도록 하라.

### 말씀을 살핌

성경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그룹에 속한 개인과 그 그룹 전체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방법이다. 성경의 한 책이나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함께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라. 이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시간만 허락하면 전 회원이 함께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 교재를 선택할 수도 있다 (Margaret Erb의 Basic Christianity는 이러한 성경공부의 매과를 인도하는 데 유용한 제안 사항이 많이 갖춰진 8과의 성경공부 교재이

다).

어떤 이유로 해서 당신이 원하는 특정한 본문에 대한 교재를 얻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보라. 성경 귀절을 볼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라. 즉 “이 귀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실을 찾으라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을 해석하라 - 어떻게 이런 사실들이 연결되는가? 왜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한 바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라 -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는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약속이 있는가?) 등이 다.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귀절에 적합하게 고쳐 만든 이와 비슷한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 드러나도록 도와줄 것이다.

준비하는데 두 세 시간을 투자한 후에, 토론을 맡은 리더는 토론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해 줄 몇 개의 기본적인 지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1. 절대로 당신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 말라.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질문을 다시고쳐 말하든지 아니면 “질문이 명확합니까?” 하고 물어 보라.

2. 그러나 침묵을 두려워 하지 말라. 그룹의 구성원들이 답을 찾을만한 시간을 부여하라. 당신이 답을 찾아내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3. 꼭 한가지 대답에만 만족하지 말라. 언제든지 더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도록 하라.

4. 모든 발언은 일단 받아들이라. 대답이 어땠든 거절하지 말라. 의심스런 답변이 나왔다면 “어떤 구절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죠?” 혹은 “그거 굉장히 흥미있는 점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도록 하라.

5. 한 가지 논점에 대해 집중하고 성경의 이곳 저곳을 찾는 일은 피하라. 만약 사람들이 연구하기로 한 본문의 범위를 넘어 가려고 하면, “어떤 귀절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요?” 하고 물어보라. 만약 어떤 사람이 빛나간 질문이나 연관된 귀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면, 이 공부의 끝난 뒤 이야기 하면 어떨겠느냐고 말한다.

6. 논쟁을 두려워 하지 말라. 논쟁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생각을 억누르기보다는 생각을 유도하도록 하라.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모든 성경 귀절이 전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 수줍어 말이 없는 회원에게는 그의 의견이나 선택이 반영될만한 쉽고 명확한 질문을 함으로써 용기를 갖게 하라

(성경공부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토론은 I.V.P가 출판한 James Nyquist 저 Leading Bible Discussion을 참고하라.)

### 하나님을 바라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문장식 기도(sentence prayer)는 각자가 하고 싶으면 몇번이고 자주 하되 한 기도 제목에 대해 한 문장이나 두문장 정도만 기

도하는 것인데, 이런 기도는 기도하면서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룹내의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하든 소리를 내어 하든 그 특별한 문제에 대해 그들의 기도를 덧붙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한 사람이 어구를 길게 늘어놓는 기도로써 모든 기도제목을 “독차지하게”해서는 안된다. 몇몇 사람이 특별한 제목 한가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게 된다. 또 이 기도는 그룹내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의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는 잇점도 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맞먹을 만큼의 유창하고, 장황하고, ‘신령한’ 기도를 해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단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소리내어 하는 기도의 사이사이, 침묵의 시간은 속으로 기도하는 기회도 되고, 당신의 그룹이 잠잠한 가운데 영광스런 주님의 임재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소그룹에 관한 다른 모든 점이 그러하듯이, 함께 기도하는 형식 역시 그룹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모임 때에는 시작할 즈음에 간단히 기도하고, 마칠 때에 그 모임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간단히 기도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 또 다른 때에는 그 그룹이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혹은 한 두 가지 특별한 중요한 필요 사항을 놓고서, 한시간 내내 혹은 그 이상을 기도하는 데만 보낼수도 있다.

## 집을 짐, 나눔, 그리고 복돋움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룹에 있어서나 성경공부와 기도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있게 해주고, 그룹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할 것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마 18 : 20). 그러나 우리 영적 성장에 중요한 건덕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을 촉진시키는 데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가장 분명한 방법은 그저 나누는 것 -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 곧 진정한 나눔이다. 축구 시합이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면서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나누지 않기가 얼마나 쉬운지, 시간은 흘러가도 서로에 대해 더 잘 아는 바라고는 없게 된다. 나눔을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형제가 예수 믿은 뒤 가장 중요한 영적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형제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요?”

“자신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형제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면 했던 일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그룹 리더는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대답하도록 할 수 있다. 침묵이 길다고 두려워 하지 말라 - 사람들이 답변을 생각할 여유를 주라. 그러나 그 그룹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수줍음 많

은 회원에게는 압박감을 주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말하는 순서는 갖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질문들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질문들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경험, 부족점과 기쁨을 좀 더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한 주 동안 개인적인 성장과 소그룹에 관한 기독교 서적의 한장(章)을 읽고 난뒤 같이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일(그리고 적용하는 것)은 함께 영적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데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이다. Ray Stedman의 *Body Life*와 Rosalind Rinker의 『기도 : 하나님과의 대화』는 특히 소그룹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고 있다.

찬송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모두가 다 아는 찬송이나 찝막한 합창곡을 택해서 부르라. 아니면 찬송가집을 사든지 빌려 오도록 하라. 피아노나 기타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함께 목청을 돋우어 즐거운 소리를 내도록 하라. 어떤 특별한 찬송가의 의미를 토론함으로써 찬송 역시 나눔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곡을 하나 만들어 함께 찬송할 수도 있다.

서로 간에 성구 암송을 격려하는 것도 그룹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다. 한사람이 그 주에 자기가 암기한 성구를 말하고, 그 귀절이 왜 자기에게는 암기할 만큼 중요했는가에 대해 나눔으로써, 매 번의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효과적인 암기를 위한 제안 사항 몇 가지가 IVP 발간 John Alexander의 성구암송 기초코스에 나타나 있다). 또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더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더 가치있는 것으로서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을 함께 암기하는 것이다. 그룹 회원 모두가 둘씩 짝을 지어 책임지고 같은 귀절을 암기하는 방법도 종종 도움이 될 것이다. 모임 도중 잠깐

동안 시간을 내어 돌씩 짝을 지은 뒤 그 주간의 귀절을 기억에 되살려 복습하도록 한다.

개인 전도의 분야에서 서로를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그룹 전체에게나 모두 중요하다. 완전히 격리되고 내향적으로만 자라난 그룹은 머지않아 생기를 잃고 침체 상태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동안 부딪혔던 기쁨과 좌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그룹 외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 즉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서로를 북돋운다. 돌씩 짝지어 배역 담당(Role Playin/한 사람은 불신자이고 다른 사람은 신자 역할을 맡음)을 해보면, 복음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제시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종종 그룹 기도 목록을 작성하여 한 주간 동안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면 불신 친구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기도로 후원해주는 셈이다.

## 목 표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명중시킬 수 없다.” 당신이 어떤 그룹에 있다면 무엇을 목표로하고, 왜 모이는 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목표를 정해 놓아야만, 무엇을 공부할 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사용할 지 알게 된다. 그룹의 목표를 이해하면 그 그룹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그룹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틀에 박힌 형식이 그룹의 목표와 더욱 일치하는 다른 활동들로 바뀔 필요는 없는가? 각 사람들이 더욱 주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 그룹이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의논할 때 너무 애매하게 정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까지도 언급하라. 가령 말하자면 인내심이 자란다든가, 기도에 있어 자란다든가, 더 나은 방친구, 남편, 아내등등이 되는 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정할 수 있다. 목표에는 단기 간에 걸친 것과 장기간에 걸친 것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같이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목표는 몇 주에 걸친 기간동안 한 장(章)을 암기하는 것을 말한다. 각자가 다음 모임까지 세 절씩 암기해 오게 하는 매 주 단위의 단기적인 목표로 이것을 나눌 수도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 12-14/롬 12/엡 4), 이러한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을 그 그룹의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우리들이 함께 행하는 모든 것들의 목표가 영적인 성장 (고전 14 : 28) 이라면, 우리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Body Life란 서적과 그 책이 논하고 있는 성경귀절이야말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원들은 장기적인 목표로서 그 그룹을 나누어 몇 개의 새로운 그룹들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그룹 인도 방법의 체득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그룹 가운데 어떤 그룹은 그리스도인과의 모임이고, 어떤 그룹은 한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더불어 복음의 내용을 공부하는 EBS (Evangelistic Bible Study/불신자 성경공부)일 수도 있다.

그룹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가능하면 측정하기 쉽게 설정하라. 예를 들면 “다음 화요일까지 Body Life 제

2장을 읽어올 것”이라는 목표는 “Stedman의 책을 계속 읽을 것”이라는 애매한 목표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측정하기 쉽다. 목표의 측정이 용이하면 할수록, 그 목표는 앞으로의 진행을 결정하고,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룹내의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설정한 목표들 사이에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룹내의 몇몇 회원 혹은 전체 회원의 능력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정해 놓는다면,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때 늘 좌절과 의욕의 상실만이 초래될 뿐이다. 반면에 아무런 도전도 줄 수 없을 만큼 극히 제한된 목표는 영적인 성장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여 자기 나름의 안이한 수준에 머무른 채 기쁨이 잡힌 위치를 넘어서지 못한다. 균형잡힌 목표가 되려면, 달성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며 동시에 우리의 능력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뻗어나가게(그리고 자라게)할 정도로 충분히 도전적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목표가 그룹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점과 그룹의 활동을 연결지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목표는 공백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바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목표를 정했을 때 만약 그 목표가 어떤 특정한 필요 사항에 기초한 것이라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신자들의 그룹에서는 뜻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룹내의 구체적인 인물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하고 이야기해보고 그것에 따라 적절히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아마 한번에 다루기에 너무나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절박하게 보이는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기초

를 두어 목표를 설정하라. 그리고 나서는 이 목표를 중심으로 그룹의 활동사항을 강구하라. 각 회원들이 성경공부 인도법을 배우는 데 목표를 둔 그룹은 매주마다 각각 다른 회원이 그들 모임을 이끌어 나가게 할 수도 있다. 그룹의 필요 사항이 기도에 몰려 있는 그룹은 (따라서 목표도 그런데) 그 방면에 가장 재능이 많은 회원 한 사람을 시켜 그 주제에 대해 일정한 시간동안 가르치게 하는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두면 그 그룹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각 개인을 도와 성장하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 있는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소그룹은 캠퍼스의 전체 모임이나 교회같은 더 큰 그룹에 대한 관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그룹의 회원들이 큰 그룹내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나, 그외 다른 분야에서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을 소그룹의 목표로 세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이 목표를 결정할 때 지극히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듯) 기도이다. 목표의 확립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 그룹은 하나님의 그룹이다. 목표 또한 하나님의 목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그 모든 목표에 다다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라.

### 값을치름

그룹의 목표를 정하는 것 이외에도 각 회원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 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눅 14 : 28 - 30). 애매모호한 생각과 책임사항의 부정확성에서 오는 분분한 의견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생길뿐만 아니라 오해로 인해 많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룹에 대한 헌약 (獻約/Commitment 이 모임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언질하는 일 -역자주)의 표현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전 회원이 서명하는 식의 서약문을 만들 수도 있다. 헌약의 정도는 그저 모임에만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원 각자의 그룹 모임 외에 생활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서약을 하는 등 다양하다.

여기에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그룹 서약문에 포함시키거나 덧붙이고 싶어할 내용일 것이다.

### 1. 매일의 경건한 시간(Quiet Time)

소그룹이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매일 자기의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데 게으른 사람이 한번씩 주간 일회의 모임만으로 영적인 신선감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또 그룹 내의 다른 회원들을 격려하고 신앙으로 세우리라는 기대도 할 수 없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영적 건강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다.

### 2.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참석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회원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축시킬뿐 아니라 타인의 성장도 저해한다. 아무 생각도 없이 몇 주간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나머지 회원들이 자기가 나오지 않기 전 상태로 돌아가 주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자기가 굉장히 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습관적으로 모임을 지체하면 일찍 온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실제 모임 시간을 단축시키는 셈이 된다.

### 3.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은 모임이 끝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은 그 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져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관

심을 가지게 만든다.

#### 4. 그룹 바깥에서의 만남

실제의 그룹 모임을 떠나 함께 모이는 일은 서로를 아는데 필수적이다. 다른 환경에 처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간혹 식사를 같이하는 것, 함께 취미를 즐기는 것, 전도활동을 인도하는 것(한번에 그룹 전체가 하거나 혹은 두 셋이 하는 것), 함께 배구를 하는 것 등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매우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그룹 내에서의 모임

성경의 권위에 대한 헌약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헌약은 그룹 내에서 성경 공부와 나눔(sharing)을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이 된다. 나눔이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진전하려면 잡담과 정겨운(?) 뒷공론을 피하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엡4:29). 함께 모이는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고 이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이라는데 공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매번 모임을 시작하는 즉시 짙막한 개회 기도를 함으로써 그 시간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은 도움이 될만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명확하게 긴 기간동안 계속되는 것같아 보이는 일에는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그룹의 서약을 12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은 여러분 그룹이 하나의 과도기적 친교 그룹으로 기능 발휘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기간이 끝날 때 그 서약문을 원하는 사람들이 개정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다. 서약문을 복사해서 각 회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하는것은 그룹이 성장하고 서로 서로 도와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일이다.

그룹의 서약문에 설명한 지침은 회원들이 딱딱하고 형식적인 강요 사항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오히려 관여된 사람들이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마지막에 합의를 보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약문은 각 회원들이 자신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룹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리기 때문에 오히려 회원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 된다. 서약문 또한 새로운 사람을 가입시키기 위한 초대에도 사용될 수 있다. 서약문은 그 그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알려주고, 새로 온 사람이 그 자신을 그 그룹에 헌약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 그룹을 인도함

당신이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인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리더의 역할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룹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의한 목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이 되어야 한다.

판에 박힌 프로그램에 빠져 버린채, 그러한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물러 있기가 쉽기 때문에, 이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계적인 프로그램이 그룹을 시들게한다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일이다. 하는 일들이 진부한 것같이 보이면 형식을 바꾸고 다른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기도해 보라. 개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어 그에따라 계획을 짜도록 하라.

매주마다 같은 리더로 하는 것보다, 어떤 그룹에서

는 돌려가면서 리더를 맡는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매주마다 다른 회원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로써 그룹을 인도할 수 있다. 혹은 매주 인도할 때 두명의 공동리더(coleader)를 세워서 한주씩 교대로 인도하거나, 혹은 4주중에 두주씩 번갈아 가면서 인도하게 할 수도 있다. 한 그룹에 리더를 하나 이상으로 하는 것의 잇점은 그 그룹이 커졌을 때(열이나 열둘 이상의 사람) 그룹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교회나 캠퍼스 혹은 인근 지역(neighborhood)같은 좀더 큰 배경안에서 몇개의 소그룹들이 모이고 있다면, 모든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리더로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때로 유익할 것이다. 또 그룹 회원들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친교와 서로간의 나눔을 위해서 때때로 모이는 것도 역시 좋은 일이라 하겠다.

어떠한 방향에서 리더쉽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든지 간에 명심할 것은 이것이다-당신의 책임은 결코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다. 당신의 임무는 겸손하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 그룹을 인도해 나가고 회원들을 섬기는 것이다(벤전5:2, 3).

### 피해야 할 문제들

소그룹은 때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되어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백성들을 굳게 세우며 성숙하게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규모의 그룹은 에베소서 4장 11-16절에 묘사되어 있는 두 가지 요소-친밀한 교제와 그리스도인의 성장-와 결합을 이루면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도 있다. 소그룹이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

문인지 사단은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펴는 것 같다. 당신이 그룹에 들어 있거나, 그룹의 시작 혹은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몇가지 위험한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그룹에 있어 나눔(sharing)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간혹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피상적인 가면 뒤에 우리 자신을 숨겨 버린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면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과 남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기꺼이 겸손해질 때, 그룹 전체에 솔직한 나눔의 분위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자신을 숨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공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당신생활의 어떤 부분 -문제점이나 실패한 일-을 나눔으로써 당신의 취약점을 그룹 전회원들에게 노출시키도록 하라. 이런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룹에 단지 충격 효과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러한 나눔을 하는 것은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여러분과 더불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자신을 함께 나눌만큼 여러분을 신뢰합니다.”하는 솔직하고 성실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단지 한사람(당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가?)이라도 이런 자세가 있다면 매우 감화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점의 노출은 소그룹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새로운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 나눔, 성장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덜어 주어야 할 마음의 짐을 한 회원이

나누기 시작할 때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그 그룹의 반응이다.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와함께 공감하고자 할 때 사랑이 전달되고 흥금을 털어놓게 할 것이다. 그가 필요로 하는바에 대해 농담을 한다든지 (“그의 용기를 복돋우기”위해) 모임이 끝나고 한시간 후에는 그 사람의 문제를 잊어버리든지 하면 솔직하고 “가면을 쓰지 않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소그룹이 매우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놀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룹이 소규모의 배타적 동아리 집단으로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양한 다른 지체도 필요로 한다. 그 그룹 밖의 사람들과 교제를 지속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교제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소규모의 모임이라도 내향적(內向的)으로만 성장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며 곧 오그라들어 소멸하고 만다.

그룹 외부와의 관계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일반적인 방향을 취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대규모의 모임에서 봉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대규모적인 모임에 봉사하려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 캠퍼스의 전체모임을 야유회나 친교 위주의 게임 같은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도 특별한 활동으로 고려해 볼직하다. 또 소그룹은 집이나 기숙사에서 신앙토론회 (evangelistic discussions)를 개최함으로써 전도를 통해 함께 봉사할 수도 있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셋째요소는 소위 “슬럼프는 3회째부터”라는 말속에 담겨 있다. 첫모임때는 새로운 모험을 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눈에 떨 정도로 나타

난다. 또 이 열심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개 세번째 모임쯤 가면 많은 회원들은 그 모임이 원래 기대했던 모든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마 친교란 것은 하룻밤새 만개(滿開)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모임에는 실망, 그리고 심지어는 반감까지도 나타나게 된다. 단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 만으로도 그 자체로서 도움이 된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 결국은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런 문제점을 토의할 정도로 열려있는 그룹은 그 결과 언제나 더욱 더 강해질 것이다. 회원들이 서로의 진실된 감정을 보게될 때, 의사소통은 점점 더 쉬워지고 여러분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난일을 돌이켜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훌륭한 청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간을 쓰고 있는 지 주의깊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못 사용하는 활동은, 중단하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소그룹에도 적용된다. 모임을 시험적으로 너덧번 한뒤 몇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간격을 정하여, 그룹은 집회하는 시간의 일부나 전체를 이용해서 그동안 경험한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평가해보아야 한다. 처음에 설정한 목표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 목표는 아직도 그룹 내 사람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것이 해결되었나? 그들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데 진척이 있었는가? 그룹활동이 이 목적을 지향하고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목표들이 현실적인가? 그룹의 목표를 다 잘 이뤄 나가기 위

해 이제부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룹 자체는 얼마나 건전한가? 회원들이 성장하고 있고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가? 그 그룹이 단지 그룹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특수한 동아리 집단이 되지는 않았는가? 혹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관심을 쏟고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그룹이 각 개인을 도와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게 하는가?

그룹 회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각자가 아직 가면을 쓰고 있는가? 솔직한 나눔이 있는가? 자유롭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 의견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한달전 보다는 사람들 서로서로를 더 잘 아는가? 서로서로가 짐을 덜어주고 있는가? 서로 도와서 그룹의 서약문을 지키도록 하는가? 이 그룹에 참여한 직접적 결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당신이 생각해 낸 다른 질문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라. 그룹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기위해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라.

이 모든것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신이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을 더욱 더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겠는가?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견고히 자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엡4:13)”까지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중요한 방책으로 소그룹을 택하신 것이다.

## 소그룹에 관한 서적 소개

---

### ① The Power of the Personal Group

---

- 저자 / Deshler, G. Byron
- 출판 / Nashville, Tennessee : Tidings Press 1960
- 특징 / 정직성과 신뢰의 면을 배우는데 특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 ② It's Alive

---

- 저자 / Hunt, Gladys
- 출판 / Wheaton, Illinois : Harold Shaw Publishers, 1971
- 특징 / 소그룹 성경 공부를 개괄적으로 살핀 것으로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이다. 소그룹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으려 하지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

### ③ Lead—Out (네비게이토에서 번역)

---

- 출판 / Colorado Springs, Colorado : Navpress 1974
- 특징 / 리더를 위한 훌륭한 지침서로서 토론을 이끌어 가기위한 질문 만드는 법, 사용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

### ④ Leading Bible Discussions

---

- 저자 / Nyquist, James
- 출판 / Downers Grove, Illinois : Inter—Varsity Press 1967
- 특징 / 그룹의 출발, 성경연구, 성경공부 인도법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

**5 69 Ways to Start Study Group** [생명의 말씀사  
역간]

---

- 저자 / Richards, Lawrence O.
- 출판 / Grand Rapids, Michigan : Zondervan 1973
- 특징 / 그룹의 출발을 어떻게 하나로부터 시작해 주 말 수련회는 어떻게 하나에 대한 제안 사항등에 걸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창의성 있는 나눔과 서로서로의 격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

**6 Prayer, Conversing with God** [생명의 말씀사  
역간]

---

- 저자 / Rinker, Rosalind
- 출판 / Grand Rapids, Michigan : Zondervan, 1959
- 특징 / 대화식 기도에 대한 실제적 지침서. 기도에 부딪쳐오는 특별한 방해거리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실고 있다.

---

**7 The Problem of Wineskins**

---

- 저자 / Snyder, Howard
- 출판 / Downers Grove, Illinois : Inter - Varsity Press 1975
- 특징 / 교회 구조에 대한 책으로 친교, 성령의 은사 및 소그룹에 대한 폭 넓은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

**8 Body Life**

---

- 저자 / Stedman, Ray C.
- 출판 / Glendale ; California : Regal Books 1972
- 특징 / 성령의 은사에 대한 토의 및 그 은사를 몸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논하고있다. 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 관한 실제적 제안사항까지도 들어있다.

---

---

## □ 그룹토의 문제

---

---

(1) 성경은 신자의 상호 관계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상호 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보라.  
또 이런 성경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바울은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목적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3)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대집회(Large Group meeting) 뿐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소그룹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경우는 이 소그룹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초대 교회의 경우는 소그룹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4) 당신이 소그룹을 처음으로 시작하려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5) 소그룹 활동의 주요 내용은 그룹성경 연구와 기도 그리고 교제이다. 그룹 성경 연구의 경우 특정 본

문에 대한 교재가 없을 때엔 어떻게 해야 되나?

토론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지침 사항들을 간단히 말해 보라.

- (6)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문장식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주의 할 점은 무엇인가?

- (7) 소그룹내에서 서로 짐을 나누는 일의 중요성과 그것의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해보라.

- (8) 그룹의 목표를 정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그 그룹이 세워야 할 목표를 실제로 어떻게 정하는가? 또, 주의할 점들은 무엇인가?

- (9) 그룹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각 사람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0) 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 (11)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 (12) 소그룹 모임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무엇을 돌이켜 보아야 할지 말해보라.



□ 소그림을 인도하려면 ● 1980년 1월 10일 인쇄 ● 1981년 1월 15일 발행 ● 발행인/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KOREA INTER-VARSITY PRESS/등록 제7 - 238호/1978. 6. 1.) ● 인쇄/나침반차 (☎ 779 - 2892)  
● 연락처/「이오」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1960호 (C.P.O.BOX 1960 SEOUL, KOREA) / ☎ 363 - 2297